‘관세 무풍지대’ 증권株 선방… ‘호실적’ 미래에셋, 관심집중

KRX 증권지수 주간 8.57% 상승
삼성·NH 등 커버리지 증권사 4곳
1분기 순익 7%↑1조104억 예상

미래에셋 5거래일 간 7.68% 뛰어
목표주가 11만원, 19.6% 상향조정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는 증권주가 반사이익을 누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뛰어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7거래일 연속 오르며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4% 상승한 798.87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증권주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주부터 현재까지는 8.57% 올랐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커버리지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 증가한 1조104억원을 예상한다”며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했음에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수익성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의 수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수익률이 가장 높은 NH투자증권을 최선호주, 실적 반등(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미래에셋증권을 관심종목으로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5거래일 동안 7.68% 뛰었으며, 미래에셋증권우도 8.13% 상승했다. 이는 컨센서스(실적 예상치)가 공개된 증권사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같은 기간 한국금융지주는 5.28%, 삼성증권 5.70%, NH투자증권 6.16%, 키움증권이 7.59% 올랐다. 관세 회피 종목으로 증권주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호실적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장 내 실적 예상치가 제공되고 있는 5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키움증권 등) 중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보다 1분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6.63% 증가한 233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이 외에 4개 증권사들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10%대 증가세가 전망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3.7%), 삼성증권(-5.8%), NH투자증권(-6.1%), 키움증권(-16.1%) 순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분기 반영된 투자자산 손상 약 600억원의 기저효과와 해외법인 이익 증가가 반영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을 238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8.8% 상회한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수치다. 목표주가도 11만원으로 기존보다 19.6%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KB자산운용

美 천연가스산업 투자 테마형 ETF 선보여

KB자산운용이 22일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 ETF’는 생산·수송·액화 및 수출 등 천연가스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로 구성했다.

천연가스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과도기 에너지원(Bridge Energy)’으로, 향후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유럽 및 아시아의 수출 증가, 천연가스 액화(LNG) 인프라 확장, 수소 연계 수요 확대 등으로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

‘RISE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 ETF’는 ‘Solactive US Natural Gas Value Chain Index’ 지수를 추종한다. 밸류체인을 생산(30%), 인프라(50%), 수출(20%) 비중으로 구분해 총 15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신하은 기자

“몸 갖춘 ‘피지컬 AI’ 시대… ETF 점유율 3% 목표”

NH아문디자산, ETF 출시 간담회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 ETF’
자율주행차·스마트 제조시스템 등
의사결정·행동하는 AI기술에 투자

(왼쪽부터)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장, 한수일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부문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고 있다. /허정윤 기자

AI는 더 이상 데이터만 계산하는 ‘뇌’에 머물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걷고, 조작하는 ‘몸’을 갖춘 인공지능,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은 이러한 기술 진화 흐름에 맞춰 피지컬 AI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지부진했던 ETF 사업에 전면 쇄신을 선언한 가운데, ‘움직이는 AI’가 NH-Amundi의 반격 신호탄이 됐다.

길정섭 NH-Amundi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 ETF’ 간담회에서 “AI는 처리와 추론뿐 아니라 계획과 행동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며 “피지컬 AI는 우리의 일상 풍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HANARO ETF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ETF 사업본부를 독립 사업부문으로 격상하고, 리테일 상품 기획력과 마케팅 인프라를 보완해 ETF 시장에서 점유율 3%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NH-Amundi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 이후 ETF 상품 경쟁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돌입했다. 김승철 ETF투자본부 본부장은 “리테일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내부 반성이 있었고, 피지컬 AI ETF는 이러한 방향 전환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ETF는 피지컬 AI 산업을 투자 타깃으로 삼는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제조시스템 등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접 행동하는 AI 기술이 대상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AI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실제 하드웨어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단계를 뜻한다.

NH-Amundi는 미국, 중국, 유럽, 이스라엘 등 주요국 피지컬 AI 선도 기업을 고르게 편입했다. 미국 기업 비중은 66%, 중국은 21% 수준이다. 엔비디아, 테슬라, 인튜이티브서지컬 등 대표 기술주 외에 샤오미, 샤오펑, 유비테크 등 중국 하드웨어 강자도 포함됐다. 운용 전략은 솔액티브 피지컬 AI 지수(Solactive Physical AI Index)를 초과 수익하는 액티브 방식이다.

피지컬 AI는 산업 혁신을 넘어 지정학적 전략 기술로도 주목받는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는 그간 ‘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몸과 뇌가 결합하는 시점”이라며 “국방과 직결되는 피지컬 AI는 미중 체제 경쟁의 핵심이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경쟁 심화와 함께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된 현 시점은 진입 타이밍으로 적절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중국 로봇 기술 실증 등 후속 이벤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H-Amundi는 이번 ETF를 시작으로 단기 테마형 상품이 아닌 장기 메가트렌드에 기반한 ETF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길 대표는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HANARO ETF는 NH금융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연금 투자 수요를 겨냥한 전략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대면·비대면 채널을 아우르는 상품 출시를 통해 연금 기반 리테일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 ETF는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AI 진화의 다음 스텝을 선점하는 전략적 상품”이라며 “ETF 사업을 NH-Amundi의 신성장축으로 삼아 시장 내 입지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코스콤RA 테스트베드 누적 평균수익률 20%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 출시를 앞둔 NH투자증권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퇴직연금 알고리즘)에서 지난 21일 기준 20.28%의 누적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상위권 10개 알고리즘의 누적 평균 수익률은 29.65%에 달했다.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알고리즘은 이날 기준 모두 36개로, RA 일임업자 중 2번째로 많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에 두고 여러 RA 제휴사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은 걸 높은 수익률의 비결로 꼽았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데이터앤애널리틱스과 협업 컨소시엄으로, 양사는 수익률 제고 최우선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전략개발에 나섰다.

계산식보다는 결과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숫값을 찾고 최적화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변수 중심의 알고리즘 설계’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했다. /허정윤 기자

내부통제 이슈 발생시 전 임원 성과급 차감

신한투자, 집단 책임제 선언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손실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구동되면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 1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한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강력한 집단 책임제 선언이다. 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 미흡 시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등급 최저까지 하향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필벌뿐 아니라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며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